

2026년 재무 분야 AI 활용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 보고서

KPMG Global AI in Finance 2026

May 2026

—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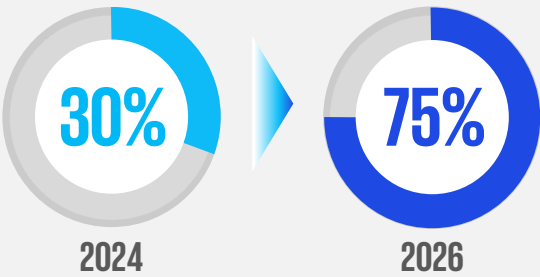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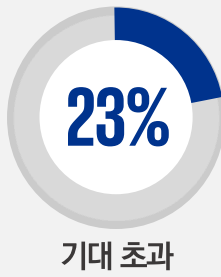
KPMG, 20개국 1,013명의 재무 임원 대상 AI(인공지능) 활용도 조사

재무 분야에서 AI 도입 속도와 확산 대비 실제 성과는 제한적

AI 적극 활용 기업,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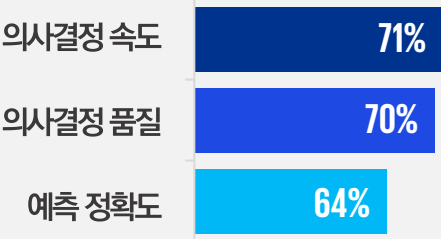
AI 도입 성과는 소수에 불과



AI 도입에 따른 ROI가
기대 수준을
초과한다고 답한
기업은 23%에 불과

AI는 비용 절감 수단에서 의사결정 엔진으로 전환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서 AI 성과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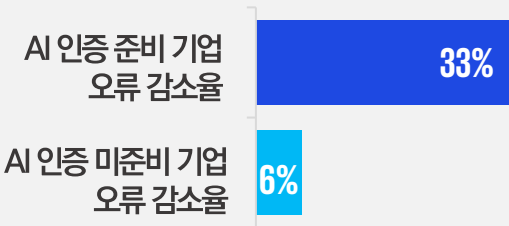
에이전틱 AI 도입 기업, 높은 성과 창출

32%p

미도입 기업 대비
주요 성과 지표에서
평균 32%p 높은 성과

거버넌스·통제와 데이터 품질이 재무 분야 AI 성과의 핵심 변수

AI 거버넌스 갖춘 기업, 운영상 오류 감소율 높음



데이터 품질 개선이 AI 가치 창출의 핵심

36%

응답 기업의 36%,
데이터 품질·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개선을 AI 가치 창출의
최대 기회로 꼽음

재무 분야 AI의 경쟁우위, 신뢰 기반 운영 역량에서 결정



본 보고서는 KPMG International이 발간한
“KPMG Global AI in Finance 2026”의
한글 요약본입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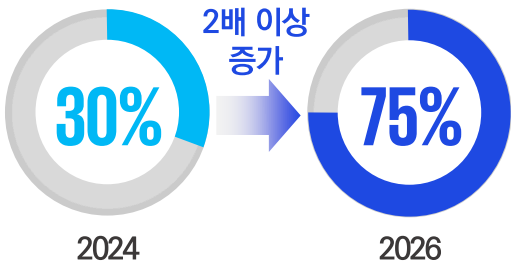
재무 분야 AI(인공지능) 도입 현황

AI 도입의 보편화, 그러나 실제 성과 창출은 제한적

- 재무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 비율은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 (30% → 75%)하며 도입 대중화 단계 진입
- AI 도입 확산과 속도 대비 성과를 창출하는 역량이 뒤처지며, 기대를 넘어서는 ROI를 달성한 기업은 23%에 불과
- AI의 도입·확장을 넘어, 에이전틱(Agentic) AI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단계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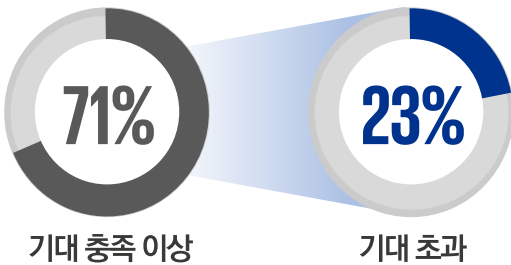
AI 도입 가속도와 실질적 ROI 전환 역량 간의 격차 발생

재무 분야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비율



응답 기업의 75%가
재무 계획·보고·상업적 분석에
AI를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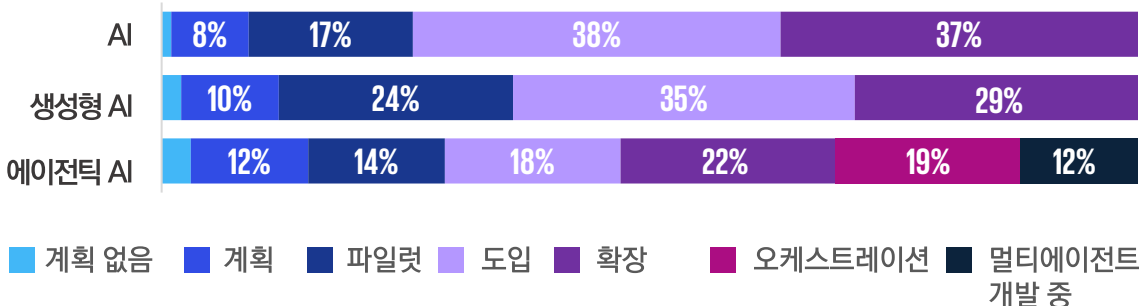
AI ROI 기대충족 여부



응답 기업의 71%가 AI를 통한 ROI를
'기대 충족' 이상으로 평가했으나,
이 중 '기대 초과'는 23%에 그침

에이전틱 AI는 오케스트레이션* 단계로 진입

재무 분야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비율



※ 세 가지 유형은 설문에서 별도 측정되었으며, 특정 유형에 한정된 결과는 본문에 명시
※ AI 오케스트레이션은 다양한 AI 도구와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조율·실행하는 고도화된 AI 운영 방식을 의미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Global AI in Finance 2026” (March 2026)

02

재무 분야 AI 도입 영역과 성과

단순 운영 효율화를 넘어 지능형 의사결정 엔진으로 진화

- AI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71%)·품질(70%)·예측 정확도(64%)가 개선, 데이터 불일치·자의성에 의존했던 계획 수립·예측·위험 평가 등 판단 중심 업무의 취약점 해소
- 에이전틱 AI는 내부 효율화를 넘어 성장 여력 확대(36%), 고객 경험 개선(35%), 대응 속도 향상(32%) 등 전략적 가치 창출 영역으로 확장
- 에이전틱 AI는 업무 전반의 계획, 추론,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에이전틱 AI 도입 기업이 미도입 기업 대비 평균 32%p, 예측 정확도·ROI에서 약 40%p의 성과 우위

AI, 판단력이 요구되는 업무에 활용되며 성과 개선

주요 성과 개선 영역

71%

의사결정 속도

70%

의사결정 품질

64%

예측 정확도

AI 성과는 단순 거래 처리가 아닌
의사결정 품질·속도·예측 정확도 등
판단 중심 업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에이전틱 AI 기반의 경쟁우위 및 성과 격차 가시화

에이전틱 AI 도입에 따른 재무 기능의 주요 가치 창출 영역



36%

성장 여력 확대



35%

고객 경험 개선



32%

비즈니스 대응 속도 향상

에이전틱 AI 도입 vs 미도입 기업 주요 성과 지표 비교

76%

도입

44%

미도입

32%p 평균

주요 성과 지표*에서
미도입 기업 대비
평균 32%p 우위

* 결산 효율성, 예측 정확도, ROI,
의사결정 품질, 의사결정 속도, 오류 감소

40%p 예측 정확도
및 ROI

도입 기업은
예측 정확도·ROI 지표에서
미도입 기업 대비
약 40%p 우위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Global AI in Finance 2026” (March 202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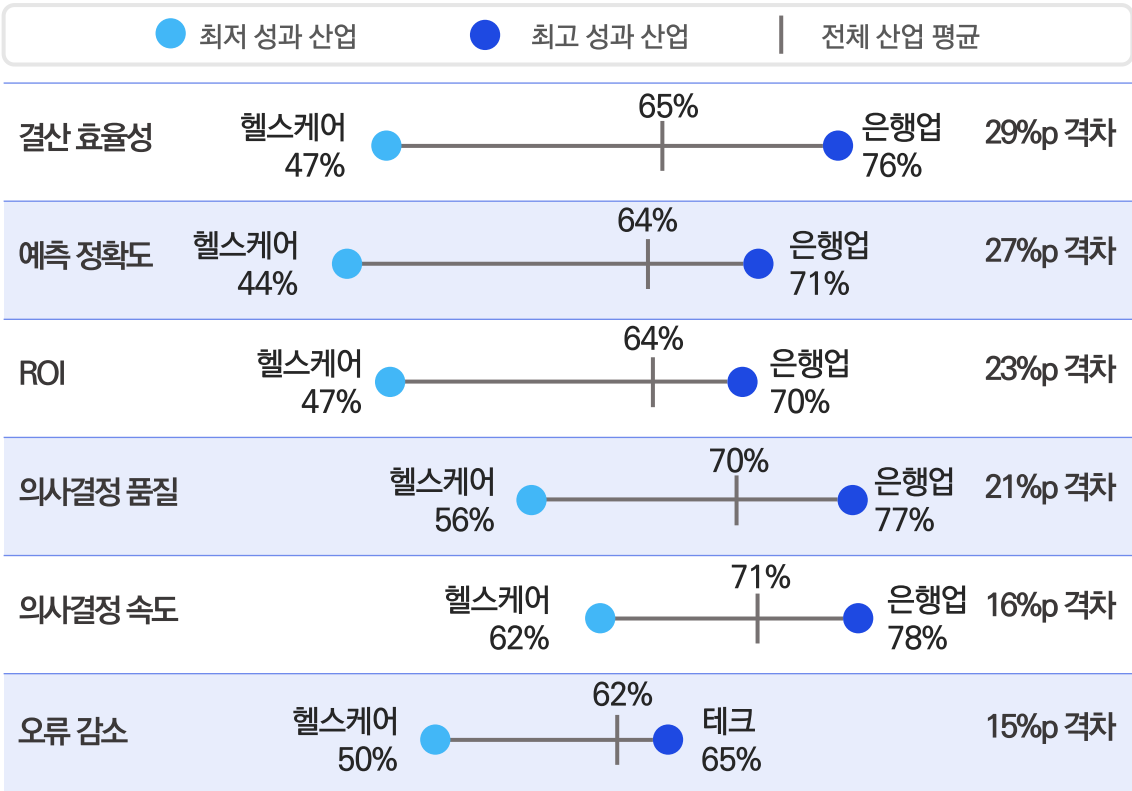
산업별 재무 AI 성과 격차

데이터·통제 체계가 성과 격차를 결정

- 산업별 AI 성과 격차는 최대 29%p에 달하며, 데이터 품질·통제 체계가 강한 산업일수록 AI 성과 우위가 뚜렷함
- 은행업은 규제 기반 데이터 정확성·품질 등으로 6개 지표 중 5개에서 선두, 헬스케어·생명과학은 동일 지표에서 최하위
- 결산 효율성(29%p), 예측 정확도(27%p), ROI(23%p) 순으로 산업 간 성과 격차가 높은 반면, 표준화된 업무의 경우 낮은 격차

데이터·통제 기반 강점에 따른 산업별 AI 성과 양극화

산업별 AI 성과 격차: 지표별 최고·최저·전체 평균



Bryan McGowan

Global Trusted AI Leader
KPMG International

“

재무 분야에서 AI로 앞서 나가는 산업은 단순히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운영에 필요한 고품질의 데이터, 엄격한 통제, 증거 기반의 문화를 갖춘 기업이 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운영될 때 성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Global AI in Finance 2026” (March 2026)

04

AI 거버넌스의 중요성

AI 거버넌스와 통제 체계가 신뢰 구축의 초석

- AI 거버넌스와 통제체계를 갖춘 기업이 AI 활용의 성과가 우수하며, 이를 통해 구현된 신뢰가 성과 향상을 견인
- AI 관련 KPI(핵심성과지표)를 측정·추적하는 기업이 미추적 기업 대비 ROI 개선율이 10%p 높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통제 수단·증거 인프라가 보다 중요
- AI 관련 KPI 측정과 추적 시스템, 결과에 기반한 실행·통제 체계, 인간 개입형 감독이 AI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자 AI 확장과 성과 창출의 핵심 요소

AI 거버넌스가 강한 기업일수록 더 나은 성과를 보임

AI 거버넌스 여부에 따른 AI 도입 성과 비교

3~6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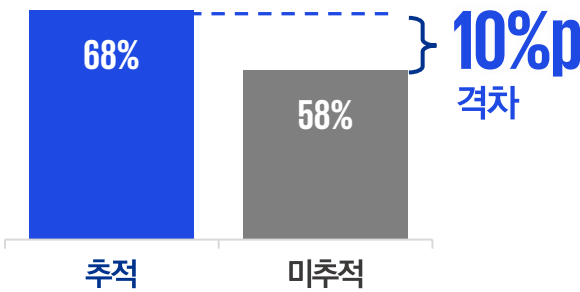
AI 관련 감사증거제출 가능
기업이 불가기업 대비
개선율이 3~6배 높음

AI 성과 개선율

	인증 준비 기업	인증 미준비 기업	
오류 감소율	33%	6%	+27%p 격차
확장 신뢰도	42%	14%	+28%p 격차

AI 활용에 대한 통제 인프라는 재무 성과로 직결됨

KPI 추적 여부에 따른 AI 도입 ROI 개선율 비교



KPI 추적 기업, 미추적 기업 대비
ROI 개선율 평균 10%p 우위
(68% vs 58%)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통제 수단과 증거 인프라 확보가
성과를 좌우

규제·전문 판단 영역일수록 사람의 감독이 필수적 요소로 부상

인간 개입형 감독 확대 비율



33%
인간 개입형
감독* 확대

*Human-in-the-loop oversight

33%의 기업이 AI 우려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인간 개입형 감독’을 강화 중
규제와 전문가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인간이 개입·참여함에 따라 결과물의 신뢰성 개선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Global AI in Finance 2026” (March 202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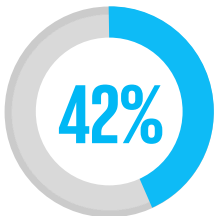
AI 인증에 대한 준비 격차

AI 거버넌스 인식과 실제 준비 수준 간 격차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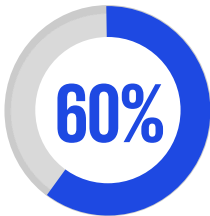
- 최근 AI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AI 인증*이 필수 요소로 부상 중이나 실제 기업의 준비는 미흡(전체 기업의 42%, 에이전틱 AI 선도기업 60%)
- AI 취약점을 추적하는 기업은 29%에 불과한 가운데, AI 관련 KPI 결과만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AI 취약점과 실패 지점을 파악하기 어려움
- 사이버보안·데이터 품질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AI를 전사적으로 적용 시 잠재적 손실도 증가 예상

전체 기업과 선도기업 모두 AI 인증 준비 미흡

AI 인증 준비 기업 비율



전체



에이전틱 AI 선도기업

응답 기업 중 42%만 AI 인증 준비,
에이전틱 AI 선도기업 또한 인증 준비가
60%로 낮은 수준

AI 리스크 추적 부재와 반복되는 취약점, 잠재적 손실 위험 확대

AI 인증 준비 기업 비율



실패 추적 기업

AI 도입 실패를
공식 추적하는
기업은 29%에 불과

사이버 보안

AI 성과 개선율

데이터 정확도

'24년 조사와 동일한
취약점 반복

AI가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닌 만큼, 잘못될 경우의
비용도 도입 규모와 함께 증가

* AI 인증(Assurance)은 AI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성능·현황·보안 등 데이터 수집), 평가(위험 대비 기준·규제 원칙 충족 여부 판단), 소통(결과 문서화 및 투명화 제공) 등 일련의 활동으로, 단순 성능 진단을 넘어 세부 통제·위험관리 문서화·설명가능성·법윤리 기준까지 통합하는 종합적 신뢰성 관리 체계로 영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



Neil Morris

Global Head of Assurance
KPMG International

“

AI 인증에 대한 준비는 이제 내부적인 규율에서 사업적 요구사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 이사회, 외부 감사인들은 기업 내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조직이 AI를 어떻게 관리·통제하고 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AI를 통한 사업 확장과 리스크 확대의 기로가 될 것입니다.

”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Global AI in Finance 2026” (March 2026)

06

데이터 품질·인력

AI 도입의 장벽인 데이터와 인력, 각각의 구조적 해법 필요

- AI 가치 창출은 기술이 아닌 데이터 품질에 좌우되며, 응답 기업의 36%가 데이터 품질·통합·상호운용성 개선을 최대 기회이자 취약점으로 지목
- 기업 대부분은 신규 채용(28%)을 통한 근본적 인력 구조 개편 대신 기존 인력 업스킬링(38%)에 치중함에 따라 인력의 AI 데이터 활용 역량 개선에 한계 직면
- 데이터 활용 능력은 재무 전문성과 AI 이해도가 결합된 전문적 기술로, 팀 역량 강화와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진 인재 채용 병행 필요

데이터 품질, AI 가치 창출의 최대 기회이자 최대 장벽

AI 가치 창출의 기회와 취약점

36%
데이터 품질
데이터 품질·통합·시스템
상호운용성 개선은
재무 분야 AI 가치 창출의
최대 기회이자 취약점

데이터 품질 확보 전략

현황

측정 지표 선정 기준 부재, 리소스 한계,
우선순위 결정 체계 미구축

해법
및 변화

AI 활용에 필수적인 핵심 데이터 우선 정제
에이전틱 AI의 원천 데이터 직접 접근,
데이터 품질 기준 자율 판단

업스킬링만으로는 데이터 활용 능력 격차 해소 불가

AI 인력 전략 현황

38%
업스킬링
기존 재무·감사팀 대상
AI 프로세스 재훈련

28%
신규 채용
새로운 역량을 보유한
외부 인재 수혈

필요 역량

데이터 활용 능력

데이터 품질 평가, 산출물 해석
및 결과 전달 능력

윤리적 판단력

빠르고 복잡한 의사결정 속도에
맞춘 실행 시점 판단 및 결정

비판적 사고

‘그렇듯해 보이는 산출물’의
오류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능력



Nikki McAllen

Global Head of Finance
Advisory
KPMG International



2년 전, 데이터와 인력은 재무 분야에서 AI 도입의 최대 장벽이었고 지금도 여전한 문제입니다. 향후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업이 AI를 선도할 것입니다. 데이터 품질은 기술적인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 역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점진적 개선이 아닌 리더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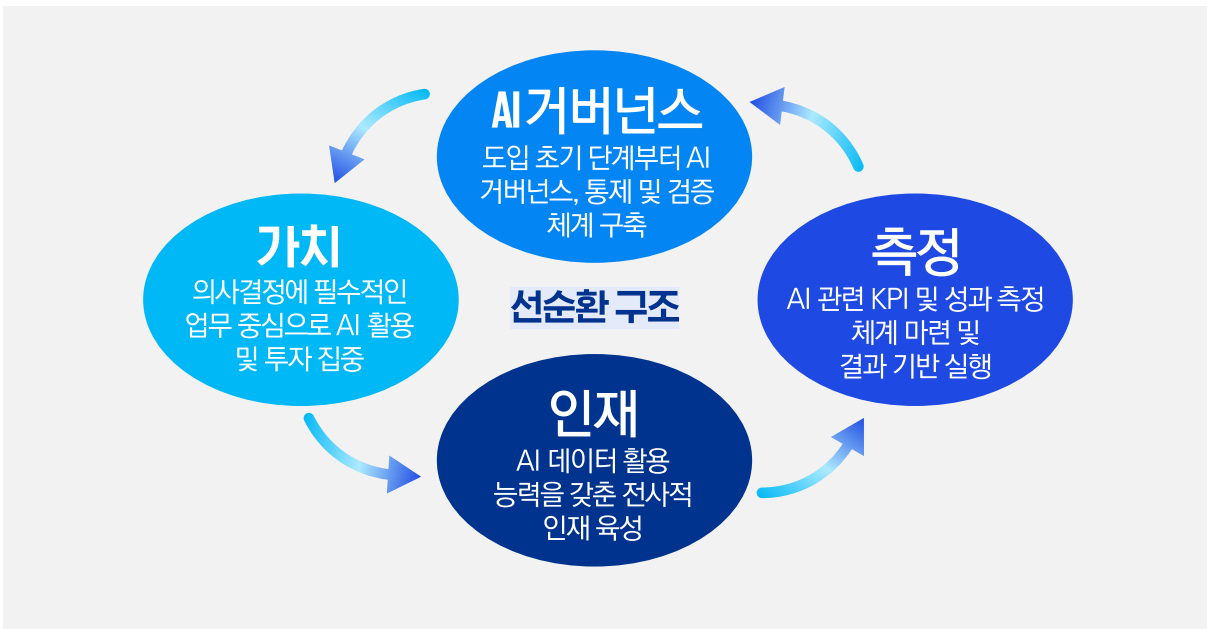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Global AI in Finance 2026” (March 2026)

재무 분야 AI 활용을 위한 4대 핵심과제

01	02	03	04
Value	Governance	Measurement	Talent
			
가치 중심으로 AI 재구성	AI 거버넌스 및 통제 역량 확보	측정 체계 구축과 실행 내재화	전사적 인력 구조 개편 및 인재 육성
계획·예측·리스크 평가·상업성 분석 등 성과가 집중되는 영역에 AI 투자	AI 도입과 동시에 거버넌스·감사 추적·증거 확보 체계 구축	단순 KPI 측정을 넘어 AI 인증에 대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능력·리스크 관리 역량·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력 구조로 전환
인간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용 사례 우선시	견고한 통제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 확보 및 AI 모델의 전사 확산	데이터 기반의 통제 및 실행체계 구축	CFO는 6~9개월 주기로 인력 계획 갱신

상호 연결된 4대 핵심과제와 실천 과제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Global AI in Finance 2026” (March 2026)

설문조사 방법론

KPMG, 전 세계 20개국·13개 산업
1,013명의 임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개요

- ✓ KPMG는 '24년부터 글로벌 설문을 통해 재무 분야 AI 활용 현황을 추적
- ✓ 올해 3차 조사에서는 AI 거버넌스·통제·인력 역량까지 포함해 재무 분야 전반으로 조사 범위 확대

설문조사 대상 및 구성

응답자	1,013명의 C-레벨 임원 및 고위 의사결정자 (재무, 리스크·감사, 기술, 일반 경영 직무)
조사 기간	'26년 3월
대상 국가	20개국(아메리카/아시아태평양/유럽·중동·아프리카)
대상 산업	기술·통신(36%), 금융서비스(22%) 등 13개 산업
매출 기준	연간 2.5억 달러 이상(미국 5억 달러 이상)
대상자 조건	재무팀(또는 유사 기능 수행 본부) 내 AI 활용 지식 보유자

분석적 정의

- ✓ AI: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하도록 설계된 기계의 지능 시뮬레이션
- ✓ 생성형 AI(Gen AI):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해 이미지·텍스트·언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고급 신경망
- ✓ 에이전틱 AI(Agentic AI):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반자율적으로 계획·추론·행동·학습하는 인공 지능 시스템

※ 세 가지 유형은 설문에서 별도 측정되었으며, 특정 유형에 한정된 결과는 본문에 명시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Global AI in Finance 2026” (March 2026)

Business Contacts

AI센터

이동근
전무

tongkeunlee@kr.kpmg.com

최종원
상무

jchoi16@kr.kpmg.com

이준기
상무

jlee199@kr.kpmg.com

금융 산업

김민규

부대표, Industry Leader

mingyukim@kr.kpmg.com

신재준

부대표

jaejunshin@kr.kpmg.com

소비재·유통 산업

한상일

부대표, Industry Leader

sangilhan@kr.kpmg.com

박관종

전무

kwanjongpark@kr.kpmg.com

테크·미디어·통신 산업

강인혜

전무, Industry Leader

ikang@kr.kpmg.com

오현창

부대표

heonchangoh@kr.kpmg.com

민성진

전무

smin@kr.kpmg.com

제조·인프라·공공 산업

황재남

부대표, Industry Leader

jaenamhwang@kr.kpmg.com

신동준

전무

dongjunshin@kr.kpmg.com

제조·에너지 산업

노상호

부대표, Industry Leader

sanghoroh@kr.kpmg.com

김성배

전무

sungbaekim@kr.kpmg.com

Author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상무
gyulimkim@kr.kpmg.com

최연경
책임연구원
yeonkyungchoi@kr.kpmg.com

노승환
책임연구원
seunghwanroh@kr.kpmg.com

이인정
연구원
ilee11@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